

전남 레저스포츠로 관광객 유치 박차

국제요트대회 등 18개 개최 4만2천명 참여

차별화된 신규대회 발굴 새 관광수요 창출

전남도가 올해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를 비롯한 18개의 독특한 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지역 브랜드 제고는 물론 동호인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레저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4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개최될 레저스포츠대회는 요트·카누·산악자전거(MTB)·승마·바다수영·래프팅·칠인3종경기·빨밭타

기 등 8개 종목 12개 대회이며 레저스포츠이벤트는 요트·카누·승마·자전거 등 4개 종목 6개 행사로 총 18개 대회에 이른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는 매년 상호 교차 개최 방식에 의해 올해는 약 50여회의 요트가 제주에서 출발, 전남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펼쳐게 된다.

전남도는 이 대회를 기반으로 전남 서남해안권과 제주권을 잇는 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산강 물길의 해양관광자원

화 및 사계절 레저상품 개발을 위해 도자사배 카누대회, 카누 주말리그, 외국인 유학생 해양레저스포츠체험 교실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대회를 영산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F1경기장을 활용한 전국자전거대회는 물론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인 목포와 여수 등지에서 국제적인 3종경기와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를 열어 녹색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별히 이동수단인 빨배를 레저용으로 처음 개발해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했던 빨배대회가 올해도 보성 벌교에서 열려 우수한 서남해안 갯벌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레저활동도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남도의 명산인 지리산·

백운산·서기산·운암산·금성산 등지에서 개최되는 MTB대회, 전국 최장인 12km의 임자도 백사장에서 열리는 전국지구력승마대회와 해변말축제, 섬진강에서 열리는 래프팅대회, 청정 남해에서 열리는 바다수영대회, 증도를 배경으로 카약과 오리엔티어링을 접목한 보물섬 카약대회 등도 펼쳐진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올해는 기존 레저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카누 주말리그, 남도 보물섬 카약대회 등 다양한 신규 레저대회를 마련했다”며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섬·갯벌·해양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신규 대회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눈앞에 1억년전 공룡이…

해남 공룡박물관 테마공원에

초대형 공룡 조형물 24마리 ‘눈길’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공룡박물관 야외에 조성된 테마공원 곳곳에 초대형 공룡 조형물들이 설치돼 1억 년 전 생생한 공룡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야외 곳곳에 설치된 실물 크기 공룡 조형물들은 모두 24마리로 이들의 키를 모두 합치면 무려 220m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단연 큰 키를 자랑하는 공룡은 쥐라기 후기 출현했던 ‘브라

키오사우루스’로 아파트 4층 높이인 몸길이 24m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뒤를 이어 ‘조바리아’, ‘마멘기사우루스’ 등 20m 넘는 대형 공룡은 물론 ‘티라노사우루스’ 12m, ‘케라토사우루스’ 10m, ‘트리케라톱스’ 9m, ‘디맥스’ 8m 등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몸집의 공룡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박물관은 지난 2007년부터 ‘위대한 발자취-비꽃’을 주제로 공룡 사파리와 미스터리 서클, 디노(dino) 가든 등 공룡 시대를 재현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애와 테마공원을 조성,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기자 사진

목포시는 지난해 10월 관계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신항 활성화에 따른 플랜트 사업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투자 기업은 수많은 사업비를 들여 부지매입을 비롯해 해외수주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인 대체이다. 시가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하고 투자기업과 기아자동차 기타 유관관계자들과의 머리를 맞대고 협의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목포시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아 투자기업



전남 아열대과수 재배 늘린다

도농기원, 망고 등 22종 선발 적응성 검토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에 대비, 지역풍토에 알맞은 아열대 과수 선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투자기업도 신항에 플랜트 시설을 할 경우 고온인 30만명과 2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는 전망성 있는 기업인만큼 목포시가 지역 정·경·관 관계자들을

남에서도 성공적인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틈새 과종은 ▲무화과 600㏊ ▲참나무 500㏊ ▲비과 54㏊ ▲부지화(한라봉) 46㏊ 등이다.

정병준 소장은 “무가온(無加溫) 재배 등 겨울철 난방비 절감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 아열대 과수가 전남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수연구소는 비교적 소비가 많고 수익성이 좋은 과종을 농가에 입식하기 위해 전남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망고, 패션프루트, 아페모야, 파파야 등을 선발, 일부 농가에 보급해 시험재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망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김덕연(56·영암군)씨는 “망고는 겨울 고추재배 온도면 재배가 가능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가 전

남에서도 성공적인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틈새 과종은 ▲무화과 600㏊ ▲참나무 500㏊ ▲비과 54㏊ ▲부지화(한라봉) 46㏊ 등이다.

정병준 소장은 “무가온(無加溫) 재배 등 겨울철 난방비 절감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 아열대 과수가 전남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2009년 열대과일의 국내소비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많고 망고스틴, 두리안,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남에서도 성공적인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틈새 과종은 ▲무화과 600㏊ ▲참나무 500㏊ ▲비과 54㏊ ▲부지화(한라봉) 46㏊ 등이다.

정병준 소장은 “무가온(無加溫) 재배 등 겨울철 난방비 절감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 아열대 과수가 전남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2009년 열대과일의 국내소비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많고 망고스틴, 두리안,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남에서도 성공적인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틈새 과종은 ▲무화과 600㏊ ▲참나무 500㏊ ▲비과 54㏊ ▲부지화(한라봉) 46㏊ 등이다.

정병준 소장은 “무가온(無加溫) 재배 등 겨울철 난방비 절감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 아열대 과수가 전남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2009년 열대과일의 국내소비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많고 망고스틴, 두리안, 망고, 아보카도 순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신항 플랜트사업 상생 이끌어야

하지만 연간 20만 대의 차량을 목포신항을 이용해 수출하는 기아자동차는 신항에 플랜트 시설을 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만 이동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목포시에 통보했다.

그러자 목포시는 언제 투자유치 협약을 맺느냐는 식으로 투자유치 기업은 반드시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랜트 사업은 안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물론 목포신항 물동량은 주도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수출량



김 병관
<서부취재본부 기자>

동원하고 이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제라도 관계자들을 동원